

광주 송정역 주차빌딩 이르면 연말 착공

1주차장 부지 7층 1600면
2022년 4월 준공 예정
공사기간 대체주차장 마련 중



광주송정역 제1 주차장부지에 7층 1600면 규모의 주차빌딩이 건립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연계되면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광주 송정역 주차빌딩이 이르면 올해 말 착공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는 광주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사업 설계 계획이 완료돼 광산구에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어 이르면 올해 12월까지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6일 밝혔다.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은 총 370억원 예산으로 현재 1주차장 부지 1만1963㎡에 7층 1600면(연면적 4만2천500㎡) 규모로 추진된다.

오는 9월 인허가 완료, 12월 착공 등 일정 차질이 없으면 2022년 4월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정역은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 하루 최대 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주차공간 추가 마련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연계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결국 광주시는 2018년 6월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하는데도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늦어지면서 주차난 등 시민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복합환승센터 사업 종료 통보와 동시에 주차빌딩 신축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광주혁신위원회가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주차장 없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내걸고 송정역의 주차기능 최소화를 주문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광주시는 올해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게 주차빌딩 조기 신축 등을 건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문제는 1년 4개월여간 공사 기간 주차난이다.

공사가 진행되면 400여면 규모의 1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레일 현재 315면 규모의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광주시, 광산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의 국유지 사용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차 대체 공간은 ▲ 송정역 후면 2주차장 입구 주변 농경지 ▲ 사설 주차장 임대 ▲ 2주차장 후면도로 공사 예정 부지 ▲ 송정역 광장 ▲ 송정역 주변 아파트 단지 철길 인근 및 유휴 공간 등이 검토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사 기간 주차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지역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경제자유구역 내 법인세 감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광주시가 요구해온 지역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 산업 투자 기업 법인세 감면 건의가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에 반영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오후 영상 회의에서 2개 현안을 건의해 공동선언문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 시장은 "전국 시·도 중 광주, 대전, 울산만이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시설 설립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에 반영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감면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급감해 기업을 유치하려면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 내용은 시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에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에 공감해준 시도지사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김 지사는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에 공감해주신 시도지사님들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한 후, 지방 분권에서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지방재정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우선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방교부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당초 대구 인터블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문에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방정부 질병 대응 역량 강화 정책 마련, 지역 공공의료체계 혁신·발전 지원, 지역 뉴딜 과제 기반 강화, 지방정부 질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 지원 광주시 250여대 8억8천만원

광주시는 8억8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50여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총중량 2.5t 이상 차량만 지원하던 것을 2001년 이후 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장치는 차종에 따라 비용의 10~12.5%인 37만2000~103만2000원을 부담하면 장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의 차량에는 전액 지원된다.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그 전에 폐차하거나 정치를 때면 사용 기간별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 상반기까지 총 2394대에 126억여원을 지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지역 예술인 일자리 지원”

전남도, 22개 시·군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은 각 시·군 당 40여 명의 작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사업 유형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전남도는 오는 7일까지 해남과 순천, 나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시·군은 지역 예술인을

6월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모든 시·군에 각각 4억여원을 들여 공공장소 등에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에 맞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사업유형은 ▲작품설치형(벽화, 조각, 회화, 미디어아트 등) ▲공간조성 및 전시형 ▲도시재생형(거리 편의시설 조성 등) ▲공동체 프로그램형 ▲지역 기록형(사진, 다큐멘터리 등) ▲복합추진형(다수유형 혼합) 등 6개 유형이다.

포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설치장소, 사업유형 등을 결정하고 참여 작가들의 제안서를 받아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 예술인 자격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미술인을 비롯 공공기관 사업 수혜 예술인,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 등이다. 일자리 창출 취지를 고려해 고교와 교수, 대학생, 직장인(고용보험 가입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 추진은 각 시·군 당 40여 명의 작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사업 유형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전남도는 오는 7일까지 해남과 순천, 나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시·군은 지역 예술인을 포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설치장소, 사업유형 등을 결정하고 참여 작가들의 제안서를 받아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 창업가 도전 응원”

광주시 ‘청년창업 카페’ 운영...원스톱 상담 창구 등

광주시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 예비창업가가 쉽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창작 거점 공간인 ‘청년창업(start-up) 카페’를 지난 1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등의 창업스타터부터 창업 트렌드 맞춤형 교육 등 창업아카데미, 창업멘토, 창업네트워킹 등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창업 카페는 지난해 3월 개소한 청년 일자리(job) 카페는 지난 달까지 1만6천400여 명의 청년이 방문해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접용 정장 대여’와 ‘이력서 사진 촬영’ 서비스는 지역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카페 이용과 관련된 정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도닥도닥 청년일자리카페’ 친구추가 또는 ‘도닥도닥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www.todak.todakjob.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창업 준비공간에서 사업화, 창업인프라, 자금, 창업지원정책 정보제공 등의 원스톱 창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향후 창업을 위한 창업 기초 준비 방법 및 단계별 창업전략 교육

청년창업 카페는 지난해 3월 개소한 청년 일자리(job) 카페는 지난 달까지 1만6천400여 명의 청년이 방문해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접용 정장 대여’와 ‘이력서 사진 촬영’ 서비스는 지역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카페 이용과 관련된 정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도닥도닥 청년일자리카페’ 친구추가 또는 ‘도닥도닥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www.todak.todakjob.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창업 준비공간에서 사업화, 창업인프라, 자금, 창업지원정책 정보제공 등의 원스톱 창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향후 창업을 위한 창업 기초 준비 방법 및 단계별 창업전략 교육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히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